

# 《창씨개명》을 통해 본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의 반동적본질

박 학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의 민족성을 없애버리고 우리 인민을 〈황국신민화〉하려고 날뛰었으며 우리의 민족문화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김일성전집》 제6권 37페이지)

지난날 일제는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40여년간에 걸친 식민지군사과 쏘동치를 실시하면서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악독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을 추구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질겁한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도발이후 《후방의 안전》과 대륙침략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광적으로 책동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황국신민화》정책을 보다 강행적으로 추진시켜나갔다.

당시 《황국신민화》를 위한 일제의 책동에서 제일 큰 장애로 된것은 조선인민의 반일투쟁과 함께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강한 민족성이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 언어와 풍속 지어는 옷차림과 식생활까지 조선의 모든것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인 민족성말살책동에 미쳐날뛰였다.

그 대표적인것이 바로 일제의 《창씨개명》책동이였다. 일제가 강요한 《창씨개명》의 내용은 한마디로 모든 조선사람들이 새로 일본식의 《씨》를 제정하며 그에 따라 이름을 바꾼다는것이였다.

당시의 일본민법 제746조에는 《호구 및 가족은 그 가(家)의 씨(氏)를 정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법률조항의 문구대로 보면 《씨》는 결국 《가》를 가리키는 일종의 칭호라고 리해할수 있다.

일본의 민법과 관습에 의하면 《가》(家)란 일정한 권리와 의무로 련결되어있는 호주(세대주)와 그 가족성원들로 이루어진 친족집단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이란 부모와 안해, 자식들만이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련결된 직계 및 방계성원들을 총칭하는 의미이다.

이러한 《씨》관습에 따라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시집간 녀자가 남편을 잃게 되는 경우 다른 《씨》의 남자에게 재가하는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같은 《씨》계렬의 남자 즉 시형 혹은 시동생에게 시집가는것이 보편화되어있었다.

결국 일본의 민법이나 관습법에 따르면 《씨》는 혈연적련계가 없는 일정한 가족성원들로 구성된 《가》(세대)에 붙는 호칭으로서 그것은 우리 민족의 성씨제도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창씨개명》의 《당위성》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그를 안받침하는 그 무슨 《근거》를 내돌리였다.

일제가 《창씨개명》을 제창하면서 그 《근거》로 내든것은 첫째로, 《력사적배경》이였다.

력사적으로 볼 때 《조선인은 황국신민화될수 있는 소질》을 지니고있으며 《원래부터 야마도민족과 조선민족은 동조동근의 혈연적필연성으로 굳게 맺어져있다.》라는 꾀변을 들고나온것이 당시 일제의 논리였다.

이러한 논리로부터 일제는 옛날 《내지(일본)로 건너가 일본식의 〈씨〉를 사용한 대다수의 조선사람들은 완전히 야마도민족과 융합되어 오늘날에는 반도인의 후예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황국신민화〉되였다.》고 하면서 따라서 지금의 《전체 반

도인이 가까운 장래에 야마도민족과 혼연 일체를 이룰 날이 올것»이라고 떠벌였다.

일제가 《창씨개명》을 제창하면서 그 《근거》로 내든것은 둘째로, 그것이 《조선본래의것으로 돌아가는 길》이기때문이라는것이였다.

일제는 조선과 일본은 다같이 오래전부터 중국의 문화적영향을 받았지만 《일본은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중국을 모방하였으나 조선은 자기를 잃고 중국을 그대로 흉내냈다. 지금까지 조선사람의 이름은 대부분 중국인같은 이름으로서 이번에 일본식이름을 붙이도록 한것은 중국적인 이름붙이기에 대한 하나의 반성이며 조선본래의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첫번째의 길》이라는 날강도적인 꾀변을 늘어놓았다.

당시 일제는 조선에는 법률상으로 《가》의 존재는 인정되고있으나 그에 대한 칭호는 없고 《성》(姓)은 남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성원들의 혈친관계를 표시하는 칭호로서 녀자가 결혼해도 성은 변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부간, 모자간은 별성으로 되며 한 집에 몇가지 성이 있을뿐 그 《가》를 호칭하는 《씨》가 없기때문에 그것은 《중국식》이라는것이였다.

또한 조선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를 가리키는 《씨》와 사람을 가리키는 《성》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호적관계법에서 《성》만을 사용하고 《씨》에 대한 개념이 없기때문에 서로 다른 성들로 이루어진 《가》를 호칭하는 《씨》를 새로 만들어내는것이 바로 《창씨》라고 하였다.

일제가 《창씨개명》을 제창하면서 그 《근거》로 내든것은 셋째로, 그것이 조선사람들의 《요망》에 의한것이라는것이였다.

일제는 일본식《씨》를 붙이고싶어하는 조선인들의 《열렬한 요망》에 따라 진정한 《내선일체》의 완성을 위해 《창씨개명》을 제정, 시행한다고 하면서 매해 10통씩의 《창씨》요청서가 제기되고있다는것을 그 《근

거》로 내들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 나라의 인구가 2 300만명, 호구수가 428만 3 756호라는것을 넘두에 둘 때 한해에 10통정도 제기된 요청서가 과연 조선사람들의 《요구》였겠는가 하는것은 더 론의할 필요조차 없다. 강압적으로 시행된 《창씨개명》의 전과정은 일제가 내든 이 모든 《근거》들이 하나의 꾀변에 지나지 않으며 일본정부의 식민지정책으로부터 출발한 강도적인 조선민족말살책동이였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조선인민을 대상으로 하여 악랄하게 감행된 일제의 《창씨개명》책동의 직접적인 조직자, 지휘자는 《조선총독부》였다.

《조선총독부》는 1937년 4월 조선민족고유의 관습과 가족관계법을 개악하기 위한 《사법개정조사위원회》를 총독부내에 새로 설치하고 1939년 11월에는 조선사람들의 성을 빼앗고 일본식씨명을 정할것을 노린 《조선민사령》을 《제령》(제19호)으로 개정, 공포하는것과 함께 각종 법률적 및 제도적장치들을 만들었다.

일제가 《조선총독부》를 내세워 《창씨개명》과 관련하여 조작, 발표한 대표적인 법률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령 20호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  
총독부령 220호 《조선후적령중 개정의 건》

총독부령 221호 《조선인 씨설정에 따른 신고 및 호적의 기재수속에 관한 건》

총독부령 222호 《조선인씨명변경에 관한 건》

총독부훈령 76호 《조선후적령시행수속 개정의 건》

총독부훈령 77호 《조선인 씨설정에 따른 호적사무취급방침에 관한 건》

이러한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마련한 일제는 1940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6개월간을 《창씨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여기에 《국민정신총동원조선련맹》을 전적으로 인입시켰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련맹》은 1938년 7월 일본국내에서 벌어진 《총동원》운동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 물적, 인적자원에 대한 총동원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조선총독부》의 보좌기관이었으며 하부기구로서 도, 부, 군, 도(섬), 읍면, 동, 리 등 행정단위련맹들과 학교, 회사, 은행, 공장, 상업점 등을 단위로 한 직업련맹을 망라한 파쑈기구였다.

일제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련맹》의 기층행정조직인 《애국반》과 각급 《직업련맹》들을 내세워 국기계양, 신사참배, 궁성요배, 《황국신민서사》의 랑독, 《국어》(일본어)장려운동, 근로봉사 등을 강요하였으며 특히 《창씨개명》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였다.

일제는 가장인 세대주가 《애국반》의 반원인 조건에서 그들을 장악하면 저들의 목적을 보다 손쉽게 달성할수 있다는것 그리고 조선사람들이 일본식《씨》를 사용하면 자연히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뀔것이라고 타산하면서 《창씨》와 《개명》을 하나의 과정으로 추진하려고 책동하였다.

일제는 친일본자들을 내세워 《창씨》의 그 무슨 필요성과 중요성을 해설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정신총동원조선련맹》아래의 여러 직업련맹들 특히는 각급 학교들을 여기에 적극 망라시켰다.

그러나 일제의 《창씨개명》책동은 우리 인민의 완강한 반대에 의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수자적으로 보아도 당시 우리 나라 전체 호적수 428만 3 756호가운데서 2월에 신고한 수는 0.36%, 3월에는 1.07% 그리고 6개월간의 신고제정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5월 20일까지도 그 수는 7.6%에 불과하였다.

이에 당황한 일제는 《조선총독부》 및 산

하의 각급 권력기관들과 헌병, 경찰 등 군사폭압력량을 총동원하는것과 함께 사회적제재항목까지 설정, 실행하는 방법으로 《창씨개명》을 악랄하게 추진시켰다.

당시 조선사람들에게 강요된 일부 제재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창씨》하지 않은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에로의 입학, 진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창씨》하지 않은 학생아동에 대해서 교원은 리유없이 질책, 구타할수 있으며 그들을 통해 부모의 《창씨》를 추동하도록 한다.

《창씨》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총독부 및 각급 관제기관에 채용될수 없으며 현직자는 파면시킨다.

《창씨》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기관들에서 일체 사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창씨》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비국민》, 《불온선인》으로 단정하고 경찰기관에 등록하며 항시적으로 조사, 미행을 하는것과 함께 우선적으로 로무징용대상으로 하며 식량 기타 물자의 배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창씨》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붙은 화물은 철도국이나 운송점에서 일체 취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재항목에 따라 일제는 《창씨개명》에 응하지 않는 조선사람들을 《비국민》으로 몰아 징용과 징병, 《정신대》등의 1차대상으로 련행해가는가 하면 지어는 출생신고를 비롯한 호적등록마저 해주지 않았다.

모든 사실은 조선에서 일제의 《창씨개명》책동이 《신고제》의 외피를 쓴 의무제였고 그 집행에서 총독부 및 헌병, 경찰 등의 강제적인 권력이 발동된 가장 악랄한 민족말살책동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창씨개명》

이 《황국신민적가정의 확립》을 실현하고 《녀성들의 지위를 향상》시켰으며 《조선문화의 중국모방정신으로부터의 탈피》를 이룩한 《조선사회발전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

《창씨개명》은 1930년대 중엽 이후 파쇼체제의 수립과 대륙침략책동이 현실화된 조건에서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성을 말살하고 저들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어 식민지 지배와 해외침략을 위한 보다 안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일본국가《정책》의 반영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감행된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의 반동적본질은 첫째로, 그것이 조선인민을 저들의 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한 침략정책이었다는 데 있다.

일제가 감행한 《황국신민화》의 근본목적은 조선사람들을 일본사람들과 똑같은 《1등국민》으로 만들어 흰쌀밥을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궁성요배》나 《신사참배》를 하며 《황국신민서사》를 외우는 일본국민의 종복으로 만들려는데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감행된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의 반동적본질은 둘째로, 그것이 조선민족을 영원히 없애기 위한 가장 악독한 민족말살정책이었다는 데 있다.

일제의 《황국신민화》는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천황》의 《덕》과 《위광》을 받으며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허황한 《천황관》이었다.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시오바라가 회장으로 있던 《조선교육회》가 그려낸 《황국신민》의 인간상은 다음과 같았다.

《황국신민은 천황폐하를 중심으로 받들고 그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절대

순종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떠나 오로지 천황에게 봉사하는것이다. 이러한 충성스러운 길을 가는것이 우리들, 국민의 유일한 생존의 길이며 모든 힘의 원천이기때문에...자기를 잊고 천황을 위하여 웃으면서 순국하는 인간》이 바로 《황국신민》이라는것이였다.

나라를 통채로 빼앗기고 말과 글 지어는 성과 이름마저 빼앗긴 조선사람들에게 일본《천황》을 위해 죽을것을 강요한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은 명백히 민족말살을 노린 가장 반동적인 정책이었던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감행된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의 반동적본질은 셋째로, 그것이 실제상에 있어서 조선통치의 정치군사적담보를 마련하는데 적극 리용되였다는 데 있다.

중일전쟁발발후 일제에게 있어서 조선은 식민지로서의 그 지위가 더욱 높아지고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였다.

내용적으로 볼 때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은 조선에서 《대동아공영권》실현의 기본목표인 《동아민족단결》의 《실체적모범》이 창조되어야 한다는것이였으며 다른 하나는 《반도가 대외작전실시에서 직접 배후의 대륙병참지역이라는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국책적》인 의미였다.

그리하여 조선통치의 새로운 《방도》로 등장한것이 《황국신민화》정책이었던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 세대들은 지난날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적 만행을 절대로 잊지 말고 투철한 계급의식으로 무장하며 기어이 천백배로 복수하여야 할것이다.